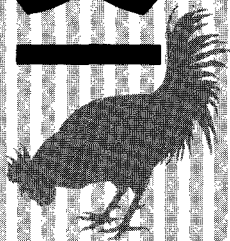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일본

무창계사 신축시, 축산공해 방지와 정전예방이 포인트

일본의 계의연구(鶏の研究)지 6월호에서는 산란계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무창계사 설치를 하였던가라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54.5%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용수수를 묻는 질문에는 1~3만수가 50%로 가장 많고 3~5만수가 27.3%, 1만수 미만이 18.2%, 5만수 이상이 4.5%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사 신설 계획을 묻는 질문에 60%가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신설할 경우 무창계사로 신설할 것이라는 의견도 60%가 나왔다.

무창계사 설치 이유에 대해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온도 점등 등 관리용이, 수용수수 증가로 비용절감이 각각 25.8%로 동일하게 나왔으며 위생대책이 16.1%로 대답하였다. 무창계사 도입후 성적(산란성적, 요구율, 생산비, 노동력, 인건비)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항목에서 유리한 것으로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창계사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전이 40.9%로 가장높았으며 환기, 방역이 각각 22.7%로 나타났으며 보온성이 4.6%, 기타가 9.1%로 나타났다.(鶏の研究)

7% 산란농가, 전체 사육수수 50% 관리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한 농업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일본의 7%(10만수 이상 농가)에 해당하는 산란계 농가들이 전체 사육수수의 49.6%(성계기준)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만수 이상 사육농가들이 6.6%에 사육수수 47.8%에 해당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볼 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육호수는 6%가 감소한 4,990호로 나타났으며, 사육수수는 1.7%가 감소한 1억4천200만수인 것으로 집계되어 규모가 적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鶏鳥新聞)

## EU

### 케이지 사육 반대 확산

지난 부활절에 영국농업장관 앞으로 2만5천명의 서명과 함께 방사로 키운 닭에서 생산된 알로 만든 거대한 부활절 케이크가 전달되었다. 이 케이크는 지난 브뤼셀에서 열린 EU농업장관 회의에서 동물의 복지차원에서 산란계의 케이지 사육 금지를 주장해 유럽연합 국가들의 한 이슈로 관심을 갖게 한데 기인된 것이라 동물보호연합회는 밝혔다. 또한 케이지 사육 금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영국의회에서는 오는 2009년까지 케이지를 없애자는데 합의를하고 올해 말에 열리는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케이지 금지 운동은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국민의 76% 인구가 채란계의 케이지 사육을 반대하는 것으로 설문결과 나타났으며 계란을 구입한 85%의 소비자들이 방사로 키워진 계란을 웃돈을 주더라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연합회는 앞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 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WP)



△ 동물보호 단체들이 산란계 케이지 사육 반대운동을 펼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호주

### 가금육 소비, 쇠고기 추월

호주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로 자리잡혔던 쇠고기가 소비량에 있어서 결국 가금육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였다. 호주의 경제 및 축산관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인당 소비량이 1년에 2kg씩 증가하여 현재 32.4kg에서 2002년까지 35.4kg으로 급 신장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금소비는 지난 1970년대 이후에 비해 거의 3배가 증가한 물량이고 닭고기 소비 증가 원인은 비용절감에 따른 가격 저렴, 건강식품으로의 인식 증가, 백색육 소비 선호사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WP)

## 필리핀

### 닭고기 밀수 심각

필리핀의 농업위원회는 닭고기와 사료원료인 옥수수가 밀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육계산업이 계속적으로 가격의 하락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의 수입업자들은 정부 몰래 밀수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지난 1/4분기동안 닭고기 수입을 쿼터량으로 묶어 미국과 호주 등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내동육 5,400톤을 포함해 총 8,400톤을 수입토록 규정하였으나 밀수로 인해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수수의 밀수에 대해 계열업체 쪽에서는 엘리노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1백만 옥수수 농가들이 작황이 좋지 않아 밀수가 자행될 수 밖에 없다고 그 원인을 토로하기도 해 심각성을 더해주었다.(PI)